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2월 7일 (제77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명품과 짝퉁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작품이나 물건'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짝퉁은 명품을 흉내 낸 모조품을 일컫는다.

요즘 짝퉁은 진품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것들도 많다. 그렇다고 짝퉁이 진품이 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정교한 짝퉁이라고 해도 당당할 수 없어 유통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은밀히 이뤄진다. 심지어 하급 짝퉁은 길에서도 숨겨두고 유통된다.

그러나 명품은 고고하다. 고액의 가격표를 걸어놓고 최고의 진열대와 화려한 조명 아래 당당히 진열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곧 명품을 한 마디로 하면 '자부심'이다. 만들어내는 자들이나 사는 자들 모두 명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이는 절대 불변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은 묵어도 헐어도 가치가 있다.

또한 명품의 다른 이름은 '품위와 품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고 소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품위와 품격의 한 요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에는 가격흥정이 없다. 또한 세계적인 명품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신들의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그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품이 명인(名人)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명인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예절이라는 그릇 속에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사는 신실한 자들이다.

명품을 든 사람보다 명품인생이 되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자. 그러면 산 위의 등불처럼 어디를 가도 빛을 발할 것이며, 존망과 선망 대상이 될 것이다.

첫눈이 펄펄 내리던 12월 첫날,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는 153운동본부가 주관한 '사랑의 쌀 및 김장 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거의 4천여 통이나 되는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하는 일이 일주일 전부터 있었고, 이날 서울과 인천의 교역자 및 장로, 그리고 뜻있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김장을 버무렸다.

역시 예수중심교인들은 대단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건만, 사전 연습이 있었던 것도 아니건만, 몇몇은 잘 절여진 배추를 날랐고, 배추 속을 넣는 사람, 그것을 김장용 비닐봉투에 넣어 나르는 사람, 비닐봉투에 담긴 김치를 153스티커가 붙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테이핑 하

사님은 김장과 쌀을 전달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셨다.

나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나눔과 구제에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나눔과 구제의 6하 원칙을 살펴보자. 먼저는 '누가 해야 할 것인가'다. 연말 구세군들의 냄비에 돈을 넣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통시민들이다.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다. 구제와 나눔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 나눔 마음이 있는 자,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넷째,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물론 물질을 나누는 것이 구체다. 그러나 따뜻한 말 한 마디, 따뜻한 눈길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재료다. 따뜻한 밥상과 따뜻한 방이 그리운 이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이 그리고 사랑이 그리운 이도 있다는 것을 알자.

다섯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은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마6:3-4).

여섯째, 왜 나누어야 하는가?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형제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2014. 12. 1 인천예수중심교회)

는 사람, 그것을 쌓아놓는 사람,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닦고 다니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척척 일을 해냈다. 누군가 김치 만드는 회사를 차려도 대박날 거라고 우스갯말을 할 정도였다. 평소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총회장 목사님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되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김장은 빠른 손놀림으로 2시를 조금 넘길 즈음에 끝이 났고, 김장하면 생각나는 수육과 갓 버무린 김장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점심식사 후 김장과 20kg의 쌀이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시대 목

가 하는 것이다.

둘째, 언제 할 것인가? 다들 그런다. 돈 벌면 한다고, 돈 좀 생기면 한다고. 그러나 얼마를 벌어야, 얼마가 생겼어야 구제할 돈이 생겼다고 말하겠는가? 나눔과 구제의 합당한 시기는 '지금'이다.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지만 지금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잠11:25).

셋째, 어디서 할 것인가? 주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22:39)고 말씀하셨다. 내 주변에 내 손길을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다 독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무엇보다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53운동본부는 작은 일지만, 은밀한 중에 구제를 실천하고 있고, 계속 실천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28:27).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배추를 직접 밭에서 수확했다



4,000여 포기 배추를 함께 절었다



사랑으로 담긴 김치를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3:20)



마음을 살아도 정승 집에 살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 13:20).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유한 자와 동행하면 부유하게 되고, 성공한 자와 동행하면 성공하며, 부지런한 자와 동행하면 부지런해지고, 긍정적인 자와 동행하면 긍정적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측면도 볼까요? 실패한 자와 동행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마약하는 자와 동행하면 마약할 수 있고, 게으른 자와 동행하면 게을러지고, 부정적인 자와 동행하면 부정적인 된다는 말씀입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엘살바도르 집회를 가서보니 이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엘살바도르는 정말 가난합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난이 좋을 리 없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인을 비롯한 목회자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여 제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고 물기에 “엘살바도르가 부자나라가 되고 싶으면 부자나라와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길을 배울 수 있고, 하나라도 더 원조 받을 수 있습니다.”고 말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엘살바도르가 교류하는 나라는 다 가난한 나라뿐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6.25전쟁 직후를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 소련과 함께 했고, 남한은 미국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6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폐쇄적인 공산주의를 표방한 북한은 주민들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고 있

고, 나와 같은 정도면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의 인물들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항상 모세와 있다 보니 모세의 능력과 통치력을 배운 것입니다. 엘리사도 하루 아침에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익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 유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더니 성령을 받아 언변에 능통하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행 4:13~14)?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어떻게 부자



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느 날 사장님의 심부름으로 호텔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상류사회의 사람들을 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후 그는 주급을 털어 좋은 옷을 사 입고, 호텔에 가서 사업가들과 교류하면서 사업이 뭔지 알게 되었고, 사업의 기회도 잡게 되어 세계적인 선박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의 경우도 일본의 Sanyo로부터 배우고, GE 같은 일류기업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가 나올까요, 용의 꼬리가 나올까요? 세상에서는 용의 꼬리로 살지 말고 뱀의 머리로 살라고 할 겁니다. 대장 행세하라는 겁니다. 남의 밑에 있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뱀의 머리로 백날 살아야 하늘 한 번 못 납니다. 그러나 용의 꼬리로 살면 뎨 나중에 날지만 어쨌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설교제목처럼 ‘마음을 살아도 정승 집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승에게

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래 아이들과 놀지 말고 심부름을 하더라도 대학생 형들하고 놀라고 말합니다. 어린 것들이 제 말뜻을 알아 들었겠습니까만, 제 마음은 지금도 아이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에 들어가 모든 것을 갖추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 분과 동행하면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사랑도 알게 됩니다. 구원도

얻게 됩니다. 그 분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시며 본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정승 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15:15).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이 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했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그 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사 숨김이 없이 다 가르쳐주실 것이며, 그 분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그 분은 참 빛이므로 그 분과 동행하면 그 분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반사체이니까요.

더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저 그렇

던데요?”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녹슬었기 때문이고, 반사체인 내가 얼룩이 졌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에

큰 인물 아래 큰 인물 난다

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사라는 90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것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과 동행하고 한 숟밥을 먹어도 그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케이스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건만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를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복 있는 자는 자리를 가려앉아야 한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당신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승리한 자들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배우고 익혀 성공한 다음, 가난하고 실패한 자를 돕고, 그들도 깨우쳐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는 자라지 못하지만, 큰 사람 밑에서 큰 사람이 납니다. 큰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할렐루야!

영어 잘하는 사람과 있으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법이다

지 않습니까?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어 G20에 당당히 들어갔고요.

그래서 자고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나은 기업, 자기보다 나은 국가를 친구삼아야 하고, 그와 동행해야 합니다. 삼발의 속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 삼발에 섞여 자라면 삼대처럼 곧아진다는 것입니다. 발이나 논두렁에서 자란 속은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속도 삼발에서는 삼을 닮아 곧고 큰 속대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도 좋은 환경, 훌륭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 그 영향을 받아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친구를 사귄 때는 한 계단 올라서서 찾아라’는 말이 있고, 논어도 ‘친구를 사귄 때는 모름지기 나보다 나은 자여야 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인생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라

많은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이나 인품이 나아지지 않고 평생 제자리걸음을 하다 간다. 왜 그렇게 많이 깨닫고 울고 회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은혜 받고 깨달은 영향이 1~2주 내지는 길게 가야 한 달 정도 가다가 식어버리기 때문이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이 된 것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건만, 습관이 되기 전에 식어버린 것이다. 변한 듯하다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간다. 결국 평생 수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았지만, 실질적 삶이나 인격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실질적 삶의 변화는 습관이 되어야 일어난다. 학자들은 어떤 일이든지 습관화하려면 66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복은 제2의 창조자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중첩적으로 기술해왔다. 목사님도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설교하시는 이유이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은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울 것은 없고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다. 이 세상에 반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 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아이가 일어나 걷기까지는 3,000번 이상 넘어졌다 일어나고,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2,000번 묻고야 익힌단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 없는 좋은 습관(성공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실패자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나쁜 습관(실패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이 습관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어릴 때

부터 환경 속에서 길들여진 버릇이거나 장성한 후에는 의도적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공습관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가 변화되면 5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다니셨다고 했다. 나는 성도님들이 특히 이기는 습관을 들이길 원한다. 세상 유혹에, 죄에, 시험에 이기고 또 이기고 참고 참아서 승리하는 습관을 들이길 간절히 바란다. 무하마드 알리는 그 매니저가 그보다 약한 선수들을 붙여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 정상급 선수들까지 습관 따라 쉽게 이기게 함으로 세계적인 복서로 만들었다고 한다. 야콥도 헝과 싸워 이겼고 외삼촌과 싸워 이겼으며, 그 습관대로 압박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 하다가 광야에서 버림받았고, 청소년들로 새롭게 훈련시켜 가나안을 정복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단다. 나쁜 습관과 싸우고, 좋은 습관은 힘들여 만들어야 한다.

이시대 목사

남들과 달라야 한다

“20세기를 빛낸 가장 중요한 여성이 두 명 있다. 한명은 라듐을 발견한 퀴리부인이고, 다른 한 명은 코코 샤넬이다.” 이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가 한 말입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 다 아시죠? 샤넬 No.5 향수를 비롯해 핸드백, 의상까지 세계적인 명품으로 여성들의 로망이지요. 그런데 샤넬이 이처럼 세계적인 명품이 된 것은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길을 간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당시 여성들의 옷은 사회활동에 하기엔 거추장스러운 옷이었습니

으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하는 혁신가였던 것입니다. 남들과 달라야 삽니다. 그것은 혁신이며, 개척으로 불리며,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경제용어와도 상통합니다. 대중이나 다수에 묻혀 산다면 편하겠지만 성공의 중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반면 남들과 다르면 욕도 먹고 눈총도 받겠지만, 결과가 과정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오라하셨지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만의 독창성이 현재성으로 나타나 지금 세계를 메주 밟듯 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목회 30년을 응원합니다. 또 그 길을 함께 해온 성도님들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용달생::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숨이 넘어가듯 엄마를 부른다.
“왜 그래?”
엄마는 놀라서 아이에게 뛰어갔다.
“엄마, 이것 좀 봐봐. 개미들 말이야. 되게 재밌어.”
엄마는 아이에게 별 일이 없는 것에 한 시름 놓으며 아이가 열심히 가리키는 땅을 쳐다보았다.
“엄마, 이 개미들 난리 났어. 내가 여기다 물을 부었더니 떠내려가면서 살려고 난리가 났어.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 나뭇잎을 보낼게, 잘 봐야 돼.”
아이는 개미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곳에 찢어진 작은 잎사귀를 놔준다. 그러자 개미들이 그 위로 애써 올라와 살았다는 듯 안심한다. 아이는 그게 그렇게 재미있나 보다. 아이는 나뭇잎에 올라온 개미를 들어 마른 땅에 놓고는 먹던 과자 부스러기를 잘게 부수어서 준다. 그러자 개미는 그것을 열심히 씹어지고 간다. 이것을 말없이 바라보던 엄마는 생각이 깊다.
개미의 운명은 아이의 손에 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아이의 손에 있다. 이렇듯 우리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살

고 죽는 것, 행복과 불행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삼상2:6~7).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물줄기를 조금 세게 틀면 홍수가 난다. 천사가 부채질을 조금 세게 하면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메추라기 좀 뿌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먹었다. 천사가 태양을 가리면 구름기둥이요, 난로를 틀면 불기둥이 된다. 만일 아이가 발로 개미를 밟아 버리면 폐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요, 개미 가까이에서 사마귀라도 잡아다놓으면 개미는 적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일련의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 쪽에서 기적이다. 하나님은 일상이고, 보통의 일들이다. 아이가 물을 부은 일, 나뭇잎을 던진 일, 나뭇잎 채 들어 옮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아

니듯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믿는다. 저 높다높은 곳에 계시는 분, 더는 그냥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니 신앙이 자주 흔들리고,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질 못한다.
아이가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듯, 하나님도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아주 가까이서, 아주 자세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139:1~4).
아이는 장난삼아 개미를 못살게 하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사랑의 눈으로 늘 보고 계신다. 그걸 피부로 느끼면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눈을 늘 인식하던 요셉의 삶을 살게 된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라.

신영서

jesus7857@g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며칠 전 신문을 보는데 한 고용정보회사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대리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한니까?”라는 질문에 “예”보다는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그리고 “당신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급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승진하고 싶은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목표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만족스럽지 않은 급여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사람들... 과연 승진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를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직분에 헌신하기 위해 사장 자리를 마다하시는 장로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주일이면 가게 문을 닫으시는 집사님... 영생을 바라보고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세요



아르세 시장 부부(목사님 오른쪽)와 현지 목회자들



이번 집회를 연결한 왈페르 목사와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업고 떠난 길인데,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힘겹게 온 길인데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고, 기대하는 성도들의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에 목사님은 정말 혼신을 다하여 기도에 전무하신다.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신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단에 섰을 때 역사가 일어

그런데 마지막 날, 모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만찬자리에 나갔는데, 아르세(Arce) 시의 호수에(Josue) 시장과 보좌관들, 그리고 목회자협의회장을 비롯한 현지 목회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목사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왈페르(Walter) 목사가 이번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왈페르 목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정말 목사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같은 큰 종이 이 작은 도시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시는 전날까지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십시오.”

호수에 시장은 두 번씩이나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다. 답이 나온 것이다. 그들은 목사님을 소개한 왈페르 목사를 거짓말쟁이, 사기꾼 취급을 하며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큰 목사가 어찌 이런 작은 도시에 오겠는가’ 하며 심지어 숙소조차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왈페르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4번을 찾아가며 거듭해서 설득했다. 그래서 겨우 성사된 집회, 그러니 그들의 준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겠나?

집회 기간 동안 차로 목사님을 모셨던 피토(Fito) 집사는 그동안 계속됐던 그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수리아 군대장관이 지극히 작은 히브리 계집종의 말만 듣고 과연 요

단강에 들어갈까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이었고, 왈페르 목사는 히브리 계집종이었으며, 목사님은 나아만 장군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갔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종을 모시는데 좋은 차로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용서를 구하는 그들 모두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경이 다 거짓말 같고 사기 치는 것 같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이번 집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긴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집회를 통해 깊이 깨달은 것 같으니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잘 알다시피 전기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야 스파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서로 만나야 가능한 것임을 아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 집회였다.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의 집회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목사님도 전력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시지만, 집회를 배설하는 쪽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기에 그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영계(靈界)의 비밀인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전립선암

::나도 건강할 수 있다::

60대 중반의 A씨는 매주 산에 오를 만큼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환갑을 넘긴 그에게 이상증상이 나타난 것은 몇 주 전부터였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찜찜한 느낌과 함께 잔뇨감이 느껴져 비뇨기과를 찾았다. 먼저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수지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의사는 딱딱한 결절이 느껴진다고 했다. 혈액을 통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확인했고, 이어 조직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암이었다.

전립선은 일종의 호르몬 기관으로 방광의 바로 아래에 붙어 뒤쪽 요도를 둘러싸고 있다. 전립선의 무게는 약 20g 정도로 호두알만 한 크기이며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이다.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후에야 잔뇨감, 혈뇨, 요실금, 소변보는 것이 힘들어진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50세 이후에 발병하는데, 고령일수록 발생빈도도 점점 증가한다.

2010년, 인구 10만 명당 25.3명이 전립선암을 앓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이어 우리나라 남성에게 다섯 번째로 흔하게 발병하는 암이다.

암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받은 A씨. 하지만 가족들은 전립선암이 순한 암이자 착한 암이라며 그를 위로하려 한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은 정말 순한 암일까?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암 증식속도가 느리다. 전이도 느린 편이라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어 10년 생존율이 80%이상으로 예후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착한 암이라 해도 전이되고 재발하는 암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전립선암이라도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고통을 초래하고 죽음에 이를 만큼 돌변한다. 따라서 전립선암 조기검진은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전립선암의 검진은 비교적 간단하다.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을 촉진하는 직장수지검사나 비교적 간단한 혈액검사로 전립선암 특

이항원검사(PSA)를 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암의 선별이 가능하다. 만약 두 검사로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확진한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므로 50세가 넘으면 정기검진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모든 암이 그렇듯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동양인에 비해 서구인들에게 높은 이유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고열량의 동물성 지방식보다는 녹황색의 채소와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순한 암이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계해야 할 무서운 질병이 바로 전립선암이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조기검진뿐임을 알아.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올려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8절)